

'97 SCM 분과위원회 회의 열려

- MOU 수정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협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3개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 군수협력위, 방산기술협력위)가 워싱턴 美 국방부에서 지난 5월 27일 개최되었다.

오는 가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간 안보협의회의 회의의 사전 실무협의의 성격을 가진 이번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실장, 획득개발관 및 군수국장 등이, 미측에서는 국방부 국제 및 상업담당 부차관, 안보지원본부 운영국장 등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 안보협력위원회(SCC)

5월 27일 이청남 국방부 방위사업실장과의 에드워드 W. 로스(Edward W. Ross) 美 국방부 안보지원본부 운영국장 주재하에 한·미 안보협력위원회(SCC :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5미리 자주포 공동생산 양해각서 수정/체결, 대구경 다연장로켓 및 전술지대지유도탄, 美정부 FMS 물자지원 우선순위 상향조정, 그리고 K-1 전차 양해각서 수정/체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155미리 자주포 양해각서 수정/체결은 한·미 공동으로 생산하는 자주포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양측은 한국내 추가 생산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양해각서를 수정/체결하기로 하였다.

한국에 대한 FMS 물자지원 및 판매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미측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국가들 보다 우선적인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연장로켓 및 전술지대지 유도탄(MLRS/ATACMS) 사업은 사거리 연장탄의 한국내 공동생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K-1전차 성능개량사업에 관해서 양측은 빠른 시일내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MOU 수정/체결 문제 등 토의를 위한 세부적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 군수협력위원회(LCC)

제2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군수협력위원회(LCC)가 5월 27일 정중민 국방부 군수국장과 폴 J. 회이퍼(Paul J. Hoepfer) 美 국방부 국제 및 상업담당 부차관 및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한·미 연합군수지원대세 증진에 관한 사항이 중점 논의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한민국 전시군수지원의 효율성 증대방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한·미간에 체결된 관련협정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유사시 美증원부대의 신속한 전개와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도록 한국의 대미 전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심층 협의하고, 주한미군 유류보급체제 개선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제2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방산기술협력분과위 회의가 5월 27일 오후 유홍모 국방부 획득개발관과 폴 J. 회이퍼(Paul J. Hoepfer) 美 국방부 국제 및 상업담당 부차관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열려, 한·미 양국의 공동연구개발, 과학기술자 교환 및 기술자료 교환

확대, 방산기술협력증진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특히 금년 방산기술협력위 회의에서는 이제까지 육군분야에 한정되었던 공동연구를 해·공군분야까지 확대하며, 자료융합, 둔감화약 등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국간 정부 품질용역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유지가 가능하도록 국방모델링 및 모의실험(DM&S), CALS와 같은 선진기법의 기반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합의하였다.

'98 국방예산 12.5% 증액 요구

- 방위력 개선사업 점유 비율 높여

국방 부는 '98년 국방예산 규모를 전년대비 12.5% 증액한 15조 5천98억원으로 편성하여 재경원에 제출하였다. 본 국방부 요구 예산안은 재경원 심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연말 국회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98 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방위력개선 사업의 점유비율을 '96년 28%, '97년 28.9%에서 '98년에는 30.4%로 상향 조정하였다.

인력운영비는 기본급여 및 군 고유수당을 5% 인상하고 부식 질개선을 중기계획의 절반



K1A1 120밀리 성능 개량 전차

연도별 국방비 요구 대 확정 현황

(단위 : %)

구분		'95	'96	'97	'98
국방비	요구	12.5	12.5	16.7	12.5
	확정	9.9	10.6	12.6	
- 방위력개선	요구	9.9	8.8	23.1	18.6
	확정	6.2	7.4	16.0	
- 운영유지비	요구	13.7	14.1	14.2	10.0
	확정	11.5	11.8	11.3	

'98년 국방예산 요구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97		'98		증가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국방비계	13조 7,865	100.0	15조 5,098	100.0	1조 7,233	12.5
방위력개선	3조 9,784	28.9	4조 7,214	30.4	7,420	18.6
운영유지비	9조 8,071	71.1	10조 7,884	69.6	9,813	10.0
- 인력운영	6조 3,366	46.0	6조 7,946	43.8	4,580	7.2
- 기타	3조 4,705	25.1	3조 9,938	25.8	5,233	15.1

방위력 개선 사업 요구예산 규모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 직	국 과 연	중앙지원
예 산	47,214 (100%)	17,148 (36.3%)	9,633 (20.4%)	12,105 (25.6%)	2,402 (5.1%)	3,879 (8.2%)	2,047 (4.4%)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였다. 또한 각급부대 운영비 동결을 통해 행정경비를 줄이고, 해외출장비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한편 '97년 절감시 집행유보 사업비는 보전소요를 반영하고, 장비유지 운영, 교육투자비는 실소요를 반영기로 하였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21세기 새로운 전략환경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전력의 완전성을 위한 부족전력, 대북전쟁억제를 위한 필수전력, 2000년대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 등을 우선순위와 가용재원 내에서 선별 추진키로 하였다.

요구예산중 75.2%가 '97년이전 기승인된 계속 사업들이며, 4.1%는 기본전력의 완전성을 위해 편제부족 보충 및 노후교체 사업이고, 10.7%가 신규전력 확보예산이다.

'98년 주요 신규추진사업을 보면 지상전력은 K-1 성능개량 전차, 신형 155미리 자주포, 신형 감시 R/D 등과, 해상전력은 고속상륙정, 구축함 3차, KNTDS 2차, 서북도서 작전시설, 해상 감시 R/D 등, 공중전력은 조기경보통제기, 폭탄 유도장치, 전투기 RWR교체 등, 연구개발은 차기세대 전차,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 개정

- 획득절차 통·폐합으로 전력화 시기 단축

국방 부는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을 전면적으로 보완, 개정(국방부 훈령 557호)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훈령 개정은 중전의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에 방위력 개선사업 제도개선 연구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방향은 획득절차를 통·폐합하여 전력화 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일원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제반업무의 공개 원칙으로 투명성을 보장하였다. 규정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요제기 및 결정

각군 및 기관에서 제기하는 전력소요문서는 「신규 소요제기서」와 「중·장기 전력소요서」로 구분하여 합동전장 운영개념에 의해 기술한다.

합참은 중·장기 전력소요서를 근거로 합동군사전략 기획서와 중기 전력소요 조정서를 작성하고 중기계획에 반영한다.

* 획득방법 결정

개략계획서에 의해 연구개발(Make)과 국외도입(Buy)을 비교하는 획득방법 결정절차는 생략하고 연구개발은 중·장기 소요중 연구개발 당위성(국방목표)에 의해 정책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시험평가

합참은 중기계획을 근거로 제안요구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공개설명회 실시후 시험평가 대상장비를 결정하고 시험평가는 합참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 협 상

기종결정을 위한 국외직구매, 기술도입생산 및 절충교역 등의 협상 조정·통제를 획득개발

관으로 일원화하고, 절충교역은 주계약 협상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주장비의 가격 상승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구매방법 결정

국외직구매 중 구매방법은 상업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FMS가 불가피한 경우 FMS로 추진토록 하였다.

* 기종 결정

‘전투용 사용자’ 장비중 경제성 있는 장비로

기종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종결정 요소의 종합적인 비교가 국익과 작전운용에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는 기종결정 요소를 종합 비교한 후 기종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기종결정으로 무기체계 채택을 같음하여 채택단계를 생략하고 기타 개정사항으로 실무과장회의의 활성화와 각부서 업무분장이 재조정되었다.

“북한 잠수함 위협에 시급히 대처해야”

- 제6회 함상토론회에서 해군의 역할과 방향 논의

21세기 신해양 질

서 속에서 해양환경과 주변국 해양수송의 장래를 전망하고 장차 한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상토론회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목포 및 홍도 근해 해군 함정 고준봉함상에서 개최되었다.

김달중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함상토론회에는 군관계자는 물론 관련 국내 학자와 국회의원, 청와대, 국방부, 합참, 안기부, 재경원의 정책실무자, 대학생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들은 지난해 동해안 북한 잠수함 침투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존 위협세력인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자고 역설하는 한편 '21세기의 해양은 정치 군사적 가치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



요하다는 인식하에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해군력 증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기택 교수(연세대)는 「소형 잠수함 대책」의 주제발표에서 『장차 한반도 주변국들은 보다 저렴하고 집약적인 무기체계에 속하는 잠수함 함대의 구축을 중심으로 해군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96년 9월 북한의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기조도 전면전의 경향보다는 소형 잠수함에 의한 대남 군사공작의 전술적인 차원에서 해군력 사용이 빈번할 것』임을 전망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기택 교수의 지적은 美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클레민스(Clemence)제독이 10년 전 핵잠수함 함장으로 재직시 예상했던 “향후 태평양에서 미 해군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북한의 잠수함이 될 것”이란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1백여척에 가까운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잠수함 대책이 시급한 과제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참석자들과 군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소형잠수함 대책에 참여한 토론 및 질의자들은 “최근 김정일이 잠수정을 전진 배치

한 것은 또다른 침투를 획책하고 있는 의도가 아니냐”고 질의 하면서 “북한은 잠수정을 ‘인간어뢰’, 혹은 ‘자살특공대’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등 북한의 현존위협에 대해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이외에도 김경민 교수(한양大)는 「대양 해군건설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경항모보다는 이지스함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병무 교수(국대원)는 「주변국 해군력과 한국의 현대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익과 주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 해역설정을 전제로 한국 해군은 근양 해군(近洋 海軍: NOT BLUE NAVY)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군이 주최한 이번 함상토론회는 지난 92년 10월 처음 실시한 이후 금년에 여섯번째 열린 것이며 ‘바다의 날’에 맞추어 실시돼 해양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KTX-1 시험비행 1000시간 돌파

- 실용시험평가 거쳐 공군 기본훈련기로 양산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된 기본훈련기 KTX-1이 총 1천시간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6월 3일 배문한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국내 항공업계 임직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시험비행 1천시간돌파 기념행사를 가졌다.

KTX-1 항공기는 한국 공군의 기본훈련기 요구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설계하고 대우중공업에서 제작한 950 마력의 터보 프롭 항공기이다. 1991년에 시제기(Prototype)가 최초 시험비행을 수행한 이래 현재 2, 3, 4 호기 3대가 시험비행활동중이며 시험비행 796회 총 1천시간을 시험비행하였다.

1995년 11월 대통령으로부터 “웅비(雄飛)”라는 휘호를 받아 명명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1996년 12월에 선행개발단계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현재 실용개발단계의 업무를 수행중이고, 금년 9월부터 개발의 최종적 시험과 정인 실용시험 평가를 1년에 걸쳐서 수행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주계약업체인 대우중공업에서 양산하여 공군의 기본훈련기로 사용될 예정이다.

KTX-1 항공기는 순수 우리의 기술로 설계하고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 기존의 제공호나 KFP 사업처럼 외국에서 설계한 것을 단지 국내에서 기술도입하여 생산하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엔진 및 계기류 등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 전문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구매하여 장착하고 있으나 이를 장착하기 위한 항공기(Platform)는 국내에서 설계한 것이므로 판권은 당연히 한국에 있으며 이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형태의 항공기이다.

KTX-1 항공기는 저익형으로 Pratt & Whitney 사의 950 마력의 터보 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프로펠러는 4개다. KTX-1 항공기 설계의 모든 기준은 미국의 군사규격(MIL-SPEC)을 적용하였다. 일부 미 군사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미국 연방 항공국 규정(FAR)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조종석은 전/후방석 형태로 전방석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사는 후방석에서 특별한 훈련없이도 이착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방석 시계가 양호하며 "0 ft", "0 Kts"에서도 사출이 가능한 Martin Baker사의 MK 16 사출좌석을 구비하고 있다.

항공전자 장비는 공군에서 기 사용중인 장비와 호환성을 갖도록 장착하였으며 고등과정으로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스위치와 보기류의 위치 및 형태가 공군에서 사용중인 고등훈련 항공기와 유사하도록 설계하였다. 착륙 장치는 많은 이착륙 훈련이 가능하도록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강도기준을 적용하였다.

KTX-1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 비행훈련 과목은 현재 사용중인 중등 비행훈련 항공기



(T-37C)의 비행훈련 과목(공중조작, 곡예비행, 계기비행, 항법비행, 야간비행, 편대비행, 이착륙 비행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배면스핀, 스냅롤 등의 공중조작 과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ILS 계기비행, GPS를 이용한 항법 비행 등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향후 KTX-1 항공기를 저속 통제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탱크, 로켓, 기총의 기본무장을 부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높은 강도로 설계하였으며 제작된 이후에도 이러한 무장들이 장착될 수 있도록 전기배선 및 장착부의 형상을 고려하여 설계반영(Provision)하였다.

또한 최대시속 4백81km, 고도 11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체공시간은 4시간으로 영국의 S-312와 스위스의 PC-9 등 외국의 기본훈련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KTX-1은 올해말까지 5호기를 개발하고 시험비행을 거쳐 양산에 돌입, 2000년에 공군에 배치할 예정이고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만큼 제 3국으로 수출도 가능하다.